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최 병 두**

New Regional Geograph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yung-Doo Choi**

요약 : 지리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지역지리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지역지리학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사회이론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지역지리학은 일련의 논쟁들, 예로, 공간성, 국지성, 재구조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 속에서 지역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적 현상과 사회적 과정, 행위와 구조, 물질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 등이 지역지리학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발달은 현실세계에서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지역의 체계적 개념화 및 지역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지역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리학에 관한 지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주요어 : 새로운 지역지리학, 지역, 공간성, 국지성, 재구조화, 세계화, 지역발전

Abstract : Geography has been defined traditionally as a discipline on regions, that is, as chorography, which means regional geography. Regional geography, which once withered up with the development of positivist geography, has gained recently its vitality. In particular, as social theories have been introduced actively into geography since the 1980s, new methodologies for regional geography have been suggested through a series of debates, for example, on spatiality, locality, restructuring, and post-modernism, though there remain still some important conceptual issues which have not yet settled down. On the other hand, new regional geography has made its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age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in the reality. That is, new regional geography has been required for a systematic conceptualization of region and for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dynamic change of region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Furthermore, an emphasis can be given to geography education for new regional geography in order to understand new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 new regional geography, region, spatiality, locality, restructuring, globalization, regional development.

지역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그리고 타자들)의 구성물이다”(Allen et al., 1998, 2)

1. 서론

지역은 인간 삶의 터전이다. 지리학은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지역에 관한 지식의 체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란 무엇인가, 지역은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은 고대 지리학에서부터 현재의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즉 지역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의 대상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정형화된 개념이나

분석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학문이 그러한 것처럼, 지리학 역시 그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연구대상의 실제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실제의 연구대상물로서 지역이란 주어진 실체라기 보다 지리학적 연구자들의 구성물이며, 따라서 연구자들에 의해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특성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지리학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은 물론 단순히 학

*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Taegu Univ)(bdchoi@taegu.ac.kr)

문세계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이라기 보다 현실 세계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 과정 속에서 개별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은 점차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세계적 규모의 자본 및 정보의 이동과 이에 따른 세계적 정치경제 체제가 모든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장메카니즘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균형상태를 전제로 하는 신고전 이론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별 지역의 특수성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정보화과정 속에서도 지역의 역할이 재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역할과 지역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지리학 또는 지역(발전)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학문세계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 과정과 논의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반영된 현실세계에서 지역의 새로운 역할에 초점을 둔 지역(발전)연구들을 평론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지역지리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

일반적으로 지리학의 연구대상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역지리학'이라는 용어는 지리학과 동의어라기 보다는 지리학의 한 영역 또는 지리학 일반과는 구분되는 어떤 범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근대성의 시발을 호머의 오딧세이에서 찾으려는 시도처럼, 근대 지역지리학의 발달을 고대 그리스시대에까지 소급해 볼 수 있다. 고대 지리학에서 지리학의 주요 영역은 3가지 범주, topography, chorography, geography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흔히 연구대상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었지만, 실제 전혀 다른 방법론을 그 속에 함의하고 있었다. 즉 지역지리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보(Strabo)가 역사적 관점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했던 지역지(chorography; choro=region)는 프톨레미(Ptolemy)가 천문학적 관점에서 지구 전체의 물리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했던 '지리학'(geography; geo=the earth)과는 아주

상이한 내용과 방법론에 근거해 있었다(이희연, 1991, 47). 다른 한편, topography는 점차 그 의미가 사라져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방법론적 함의를 추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학의 범주화는 근대지리학의 태동기에 바레니우스(Varenius)의 일반지리학/특수지리학 간 구분 및 칸트의 지리학에도 반영·재현되었다.

19세기 근대 지리학의 성립을 통해, 지리학은 지표면의 '단순한 사실이나 특징들을 수집하고 배열하는' 학문의 수준을 능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반(전체)/특수(부분)간을 구분하는 지리학의 범주화(권정화, 2001)는 귀납적 방법 속에서 개별 현상들 간의 연관성(경험적 법칙)을 강조한 훔볼트(Humboldt)나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면서 개개의 사실과 그 사실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 리터(Ritter)의 지리학에서 (이들의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소 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지역간의 연관성을 통해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과 일반적 현상들을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법칙을 추구했던 독일지리학의 전통은 이들 이후 리히트호펜(Richtofen)의 지역지(chorography), 라젤(Ratzel)의 인류지리학(Anthropo-geographie), 헤트너(Hettner)의 지역과학(chorological science)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연구대상으로서 개별 지역을 분석적 또는 종합적 방법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권용우·안영진, 2001, 151-171).

이러한 독일 지역지리학의 전통은 미국의 핫슨(Hartshorne, 1939)을 통해 이어지는 반면,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전통적 맥락은 오히려 프랑스의 지역지리학에서 찾아진다. 비달 블라쉬(Vidal de la Blache)로 대표되는 프랑스 지역지리학은 생활양식(genre de vie)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milieu)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연적 동질지역(pays)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지역(pays)은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이나 사건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리적 지역이며, 각 지역은 그 자체의 질서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프랑스 지역지리학이 신지역지리학의 기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주장하는 의도성을 단순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자연·인문적 환경(구조) 간 상호관계 속에서

지역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서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손명철, 1996, 83).

근대 지리학의 성립 이후 전통적 지역지리학은 독일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은 핫손에 의해 그 정점을 이룬다(Gregory, 1981). 그에 의하면, 지리학은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차별성에 따라 지표상의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표면 현상들은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지표면상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서로 다른 지역적 요소들의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복합체로서 지역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이들간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은 다시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그의 주장은 예외주의 논쟁과 그 이후 불어닥친 지리학의 이분법적 범주화(대표적으로, 특수성/보편성, 개성기술적/범칙추구적)에 휩싸이면서, 결국 범칙추구적 지리학(즉 공간과학)의 승리에 따라 침몰하게 된다.

고대 지리학에서 근대지리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립·발전·쇠퇴한 지역지리학으로부터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Gerald Wood, D., 2001). 그러나 근대적 지역지리학의 문제점은 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연구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는 총체적 관련성 속에서 지역을 고찰하기 보다는 대부분 임의적으로 구분된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② 지표면 현상들의 기술, 또는 이들의 특성 규명에 우선하여 이들의 발생을 조건지우는 구조적 차원을 무시했고, ③ 때로 지역의 지표 현상들에 관한 기술을 우선함으로써 지역에서 생활하는 실제 주체로서 인간이 배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④ 결국 이분법적 지역지리학의 정의로 인해, 공간과학과 대립되는 지역지리학은 이들 간을 통합하지 못하고 지리학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공간과학으로서 실증주의적 지리학은 그 한계로 인해 다양한 비판에 봉착하게 되었고(최병두, 198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Gregory, 1978). 즉,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태동은 범칙추구적 공간과학으로서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공간과학적 지리학에 의하면, “지역은 18세기의 개념”이며, 현대세계에서 “지역은 경관상의

특징이 단절되기 보다는 경관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이성은 전적으로 부정된다. 공간과학에서 범칙추구적 열망은 전통적 지역지리학이 본질적으로 개성기술적 지향을 가지는 것으로 왜곡되고 비판된다. “지역지리학자들의 실수는 위치의 고유성이라는 사고”(Bunge, 1966)라는 점에서 공간과학의 승리는 “지리학의 전통적 구성요소의 상실”(Guelke, 1977)을 초래했다.

그러나 공간과학으로서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비판, 특히 인간주의적 지리학은 인간의 고유한 감정, 의지, 의도성과 의미있는 행위 등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하는 장소의 특수성을 분석하면서, 지역지리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특정 장소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리학의 전통적 애착이 회복되면서, “지역의 개념이 인간주의 지리학의 출현과 더불어 재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ead, 1980). 이와 같이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가능성은 분명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우선적으로 시사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인간주의와 구조주의로 분리된 방법론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방법론의 통합에서 주요한 준거물로 제시되었던 구조화이론은 지리학 방법론 일반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기든스(Giddens, 1981)는 지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특히 장소)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지혜로운 인간과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무대로서 현장(local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지리학에서는 그레고리(Gregory, 1978, 171)가 구조화이론의 지리학적 응용 가능성과 이에 따른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는 지역적 사회구성들, 지역적 접합들, 지역적 전환들의 구성에 관해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트리프트(Thrift, 1983)는 보다 직접적으로 구조화이론을 평가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상호행위를 위한 배경으로서 지역을 강조하고 지역지리학의 재건을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현재 지리학이 처해 있는 학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리학은 오랜 전통 속에서 분명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었지만(류제현, 1987), 오늘날 지리학은 자신의 연구대상을

개념화하지 못하거나 또는 합의된 연구방법론을 찾지 못한 채 혼돈 속에 놓여 있다. 또한 지리학은 그 연구대상인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적절하게 추적하지 못한 채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면서, 그 혼돈과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서태열, 1989; 손명철, 1994; 송언근, 1996. 또한 류우익, 1987; 최재우, 1997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새로운 개념과 연구방법론들의 종합을 추구한다. 공간과학으로서 실증주의적 지리학이 오랜 전통을 통해 형성된 지역지리학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주류 지리학을 구축하지만, 1970년대 후반 지리학은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개념 및 연구방법론을 찾아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였다(최병두, 1988 참조. 또한 이회연·최재헌, 1998 참조). 이러한 시도의 목적은 우선 실증주의 지리학을 비판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리학 내에서 그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사회이론 및 철학 일반에서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들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리학자들은 수용한 개념과 방법론으로 지리학을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회이론 일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지역지리 연구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만약 개념들이 지닌 공간성이 강조될 수만 있다면 연구를 더욱 진전시켜 줄 수 있는 개념들도 많이 있다”는 주장이 이해될 수 있다(Thrift, 1990). 지리학은 이제 새로운 개념과 연구방법론들의 종합으로서 지역지리학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연구대상인 해당 지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 동안 지리학은 단지 학문적 영역 내에서 새로운 방법론이나 개념들을 찾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지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자 했다. 현실 세계 속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개념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은 더 이상 하나의 고립된 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고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른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지역은 하나의 고립된 실체라기 보다는 전체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한 부분이다(Massey, 1979; Allen et al, 1998). 1980년대 이후 지리학은 상당한 발전을 보이면서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 못지 않게 자본주의의 전체적 변화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적 세계 공간 내부의 각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주의 세계공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사실 각 지역들과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 연구에 의해 완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추구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지역지리학적 사고가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지역이라는 보편적 정의 그리고 지역지리학을 위해 수많은 개념들과 방법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지리학의 발달은 현실적으로 세계화시대의 각 지역에 관한 객관적 연구뿐만 아니라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실 시·공간 속에서 세계와 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순수한 학문, 특히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고유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보다 포괄적인 현실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수 있다. 즉 18세기 세계지도의 백과사전식 계몽주의 지리학의 경우처럼,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세계와 지역에 관한 지식의 획득은 자본가나 정치권력의 새로운 의도(즉 새로운 제국주의)에 봉사할 수도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면서,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1)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논쟁

1980년대 지리학에는 비단 구조화이론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론과 연구방법론들이 쇄도하게 된다. 지리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과학적 실재론,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디즘(조절이론으로 대표됨) 그외 마르크스주의의 여러 가지 변형들을 섭렵하고 이들을 지리학적으로 재구성·발전시키려고 했다(한국공간환경학회, 2000 참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념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지역지리학 내에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Pudup, 1988). 특히 지역지리학과 관련된 여러 논쟁들, 예로 공간성(spatiality)과 장소(place)에 관한 논쟁, 국지성(locality)에 관한 논쟁, 재구조화(restructuring)에 관한 논쟁,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지리학적 논쟁 등은 아주 주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1) 공간성에 관한 논쟁: 공간성에 관한 논쟁은 이미 1970년대에 '공간적 현상과 사회적 과정(또는 구조)간의 관계를 의문시했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에서 잠재되어 있었다(Peet, 1978; Smith, 1981, Soja, 1980). 공간성에 관한 논쟁은 ① 사회적 구조가 공간적 현상을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사고(Harvey, Castells), ② 공간과 사회 간의 변증법을 강조하는 주장(Lefebvre, Soja), ③ '사회적인 것'은 모두 '공간적'이라는 사고(Pred), ④ 사회적인 것은 모두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간적 맥락으로서 공간성을 가진다는 주장(Soja, 1985) 등으로 진행되며, 이들 각각에서 다소 미묘한 차이가 있는 주장들로 세분된다. 이러한 공간성에 관한 논쟁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다 포괄적으로 공간과 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예, 공간의 사회적 생산, 사회의 공간적 구성)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른 한편, 이러한 공간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장소의 개념이 강조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을 위한 어떤 단초가 제공되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은 1970년대 인간주의적 지리학을 추구했던 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장소에 대한 인간의 감정과 소속감 또는 정체성 등이 그 핵심적 주제였다(Tuan, 1974, Relph, 1976). 인간주의적 입장에서 장소에 대한 강조는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있어 공간의 개념(즉 인

간 의식과는 분리되어 대상화된 공간, 물리적 또는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공간, 또는 인간의 선택적 인식 속에서 기하적으로 표현되는 공간 등)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여기서 장소는 신체를 통한 개인적 관계 또는 생활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한 공간적 가치의 부여와 경험의 획득 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새로운 지역지리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Entrikin, 1994).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소의 지리학은 장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장소의 정치 또는 정체성의 정치 등으로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국지성 연구나 포스트모던 지리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특유의 장소들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즉각적인 경험세계와는 동떨어진 국제 정치나 노동자계급의 정치 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능적 공간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재강조되기도 했다(Harvey, 1993).

(2) 국지성에 관한 논쟁: 1980년대 후반 국지성 개념에 대한 논쟁은 19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연구·이해해야 할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즉, 1980년대 중반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3개의 국지성(locality) 연구 프로그램을 입안·운영했으며, 이에 관한 연구수행 및 발표과정에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3가지 연구는 각각 상이하게 국지성을 개념화하거나 분석했다. 즉 ① 국지성은 일반적 법칙 또는 보편성에 대한 잔차 변인으로 처리되거나, ② 사회과정이 상이한 공간적 상황(공간성이 보다 중요하지만)하에서 국지성은 매우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③ 공간중심적 연구에서도, 국지성이 조작적 또는 개념적 분석단위가 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공간적 객체로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국지성에 관한 논쟁은 주로 ③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Ducan, 1989; Jonas, 1988 등 참조).

이 논쟁은 한편으로 국지성 개념에 관한 것과 실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즉 재구조화과정)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개념적인 부분 즉 국지성이라는 사고의 개념적 위상에 관한 부분이 우선

강조될 수 있다. 프로젝트로서 수행되었던 '국지성' 연구의 책임자였던 쿠크(Cooke, 1989)는 우선 기든스의 개념을 빌리지만 그의 용어 현장(locale)은 공간적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기각하고, 단순히 장소나 지역사회(communities)가 아닌 사회적 힘과 행위의 합으로서 국지성(locality)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개념에 기초한 연구에 대해 스미스(Smith, 1987)는 이 연구가 통계적 자료의 나열이며 특정 장소에 대한 초기 경험주의적 연구 수준을 능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그의 여러 학자들(Cochrane, 1987; Duncan, 1989)도 이러한 비판에 동조한다(주로 *Antipode*, 1987-9 참조).

이들의 비판을 요약하면, ① 연구가 경험주의에 빠져있으며, ② 국지성의 범위 역시 모호하고, ③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④ 따라서 공간적 물신론(결정론)에 빠졌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쿠크(Cooke, 1989)는 다시 자신의 입장, 즉 국지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뒤이어 *Environment and Planning A* (1991)의 특집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고자 했다(Pratt, 1991). 이러한 국지성에 관한 논쟁은 국지성의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새롭게 유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등장하도록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비록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풍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개념적 입장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장소(place)를 새롭게 강조하는 일단의 지리학자들이 등장했다(예, Agnew and Duncan 1989). 그러나 그 이후 국지성에 관한 개념과 장소를 강조(선호)하는 방법론은 점점 맥락적 배경에 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탈맥락화), 국지적으로 드러난 특수한 경관들 또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스펙테클화(spectacularization)에 관심을 두면서, 결국 포스트모던에 관한 논쟁으로 흡수되게 되었다고 비판된다(Thrift, 1990). 특히 기존의 논쟁에서, 국지성이라는 개념은 주체 또는 주관성을 결여(구조의 승리)한 채, 예로 개연성(contingency)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제에 봉착했다고 비판된다. 즉 "개연성이라는 용어는 ...행위의 제약조건이나 강화조건으로서의 맥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 행위나 주관성이 형성되

는 배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Warde, 1989, 279).

(3) 재구조화에 관한 논쟁: 재구조화에 관한 지리학적 논쟁은 매시(Massey, 1984)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후 정통정치경제학/조절이론, 포드주의/포스트포드주의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논쟁은 후기의 발전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례지역의 분석을 통해 매시는 비록 두 지역이 광범위한 노동분업에서 유사한 위상에 처하게 되지만, 과거 공간분업에서 그들의 역할은 아주 상이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투자의 층'이라는 개념이 도출되면서, 한편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지역들간 지배/종속 간의 보편성이, 다른 한편으로 장소의 특수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재구조화에 관한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국지성 논쟁과 동일한 연구과정, 즉 1980년대 영국의 경제적 재구조화에서 이루어졌던 공간적으로 상이한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현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둘러싼 쟁점들이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재구조화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구성 요소들 간 관계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재구조화의 개념은 3가지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첫째, 재구조화란 자본주의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또는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둘째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지리적 공간에 걸쳐 조직되는 방법의 변화를 초래를 하거나, 셋째, 노동의 공간적 분업과 사회적 관계의 지리적 유형 간의 연계에 있어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이다(Lovering, 1989a). 이러한 점들에 초점을 둔 재구조화 접근은 전통적인 입지이론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이론적 배경도 달리한다. 또한 재구조화이론 내에서도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차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재구조화 이론은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재구조화는 그 내적 특성의 변화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경제 및 공간의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4)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쟁: 국지성과 재구조화에 관한 논쟁은 서서히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쟁으로 흡수되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쟁은 우선, 디어(Dear, 1988)의 논문에서 "지리적 사실은 총체적(totalising) 담화를 거부한다"는 포스트모던적 주장과 이러한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는 쿠크(Cooke, 1987), 세이어(Sayer) 등의 연구에 대한 하비(Harvey, 1987, 1989)의 비판에서 출발한다. 하비의 주장에 의하면, ① 이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상품성이 일상적 삶의 모든 부분에 관철된다'는 주장만큼 총체적인 것은 없으며, ② 이들 주장의 배후에는 포스트모더니스트적 사고가 깔려있으며(포스트모더니즘이 견지하는 일종의 문화적 상대주의가 국지적 문화와 지역분화에 잘 적용될 수 있다는 점), ③ 국지적으로 지역화된 담론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마르크스주의적 추상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러브링(Lovering, 1989b)은 포스트모던 지리학(과학 부정, 생활세계 강조, 개인주의적 정치 주장)과 마르크스주의적 지리학(과학적 개념, 사회관계의 구조적 차원 강조, 집단주의적 정치 주장)간에 이루어진 논쟁을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하나의 변형모델로 통합시키고자 했다. 특히,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여는 거의 없으며, 생활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경험적 틀과 계층체계에 대한 매개물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지성 및 재구조화의 개념을 강조했다.

그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쟁은 그 이전의 여러 논쟁들과 중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국지성 = 공간재구조화 = 포스트모더니즘(국지적 생활세계)이라는 등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지역지리학과 관련된 개념들이 중첩되고 다양해지면서, 때로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진행과정에 대해, 트리프트(Thrift, 1990)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면서, 과거의 지역지리학적 배경을 전제로 탈-후기구조주의(post-poststructuralism)의 맥락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에 의하면 '재구성된' 지역지리학은 "비달 블라쉬(Vidal de la Blache)의 관심, 즉 사람과 장소 그리고 인과율에 대한 관심을 수용하고, 이들을 다시 새로운 이론적 틀 속에 위치시키고자"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논쟁들 외에도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왈러스타인의 세계체계론이나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체계이론적 접근을 들 수 있다(이재하, 1997; 이희연·최재현, 1998). 이러한 체계론적 접근은 전체로서 세계와 부분으로서 지역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2)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위한 주요 쟁점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앞으로 보다 세련될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과거의 지역지리학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서의 독특한 상황을 해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특수한 또는 개성기술적인 지리학이 아니다. 리(Lee, 1985)는 재구성된 지역지리학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지리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과정, 인간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조화되는 사회,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발생한 국지적 전환, 영역의 구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의 변화로서 지역을 재인식하고자 했다(또한 Scargill, 1985 참조). 그리고 트리프트(Thrift, 1990)에 의하면, 현대 지역지리학의 다른 변형들, 국지성 연구(구조주의적 또는 탈구조주의적 방법론을 내재), 장소 연구(장소에 대한 애착 강조) 등과는 달리, '재구성된 지역지리학'은 단순한 지역 서술이 아니라 이론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시도는 지역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정치경제학이나 조절이론과 같은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론을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완전히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정치경제학과 지역연구가 융합된 '지역적 정치경제학'으로의 전환(Agnew, 2000), 또는 지역적 축적체제 또는 조절양식과 같은 개념(Kratke, 1999)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위한 연구방법론은 현재 어떤 체계화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형화되어야 할 것이다(Allen, et al., 1998).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연구방법론 또는 이론 일반이라기 보다 이를 위한 방법론적, 이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논의에 앞서, 우선 기존의 이론론적 사고, 즉 특수/보편, 독립적/상호의존적, 경험적/이론적, 서술적/분석적, 맥락적/범칙추구적, 응용연구/순수연구, 우연적/필연적, 구체적/추상적, 국지적/세계적인 간의 구분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Sayer, 1991). 이러한 이론론적 사고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된 논쟁들에 관한 이해에 기초하여 몇

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물론 새로운 지역지리학이 오직 하나의 방향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1) 공간적 현상과 사회적 과정: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지역을 단순히 공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사회적(복합적이고 중복적인) 과정들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과정들은 사회공간적 조직과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지역적 유형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과제로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과정의 시·공간적 기원과 종말은 어디인가? 새로운 사회과정의 시·공간적 차원이 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과정들을 재형성해 나가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사회적 과정과 시공간적 형태간의 변증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체·행위와 사회·구조: 구조와 행위에 관한 논쟁에서 현재 상황은 구조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 수행은 새로운 지역지리에서도 이원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주관성을 이원화하려는 연구(예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대화와 담론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과학 일반에서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지역지리학은 지역적 집단의 정체성 및 그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를 강조해야 한다.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어떤 지역적 참여/저항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대화적/상호주관적 과정으로서 주체를 구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할지라도, 특정 담론은 맥락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체는 단지 언어적 구성물 이상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주체와 주체성은 항상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지리학과 관련된 앞선 논쟁들에서 맥락의 존재와 중요성이 거의 무시되어 왔다, 여기서, '맥락적' 지역지리학과 '구성적' 지역지리학의 차이에 관한 이해가 강조된다. 즉,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관성과 주체가 설 자리가 마련된 설명들을 구축하는

것, 인간 주체에 대한 충분히 맥락화된 설명들과 맥락에 대한 충분히 주체화된 설명들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Thrift, 1990). 이러한 점에서, 지역지리학은 인간이 들어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지리학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3) 물질적인 것(유물론)과 언어적인 것(담론이론):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에서 언어적인 것에 비해 물질적인 것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비판적(또는 과학적) 실재론은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과 목적을 명료하게 하는데 기여했지만, 해석학적 차원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다(Sayer, 1989). 이로 인해 실재론적 지역지리학은 학문의 객관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한편, 생활 체험을 무시하거나 또는 애매한 용어들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적 연구경향들은 물질적 질서(맥락)보다 인지적 및 언어적 질서에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경향과 반경향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4) 세계적인 것과 국지적인 것: 지역에 대한 강조는 세계적인 것을 간과하고 점점 국지적인 것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지성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과거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세계화과정에 대한 변증법적 대립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세계화에 관한 거시지리학과 국지성에 관한 미시지리학을 공간적 규모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및 연구방법론적 차원에서 통합(또는 절충)할 수 있어야 한다(Harvey, 1993).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보다 현실 세계에서 지역의(발전)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게 제시될 것이다.

(5) 인간사회와 자연환경: 새로운 지역지리학에서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내재한 문제들에 관심을 고양시키게 될 것이다.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규명은 (지역)지리학의 전통에서 오랜 과제였지만, 공간과학적 지리학의 등장으로 인해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화와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이 과제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게 되었다. 예로, 한편으로 상품화과정에 의해 야기된 자연에 대한 파괴위협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생물지역주의'와 같이 지역지리학에서 장소특정적인(국지적) 자연환경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McTaggart, 1993).

(6) 그의 지역지리학적 쟁점: 연구방법론의 차원에서 예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과학-분석적 방법과 해석-이해적 방법 간의 연계점을 찾아내는 문제(Sayer, 1989)가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단위 지역의 서술이 아니라 전체 사회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이론분석적이고 동시에 해석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 차원에서 예로, 연구대상으로서 특정 지역을 어떻게 범위를 지을 것인가, 즉 지역의 시·공간적 분절화(지역구분과 시기구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지역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규모 설정으로서 지역화는 지역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규모의 정치가 강조되고 있다.

4. 세계화시대의 지역발전과 지역지리학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발달은 물론 단순히 이론적, 개념적 차원의 논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세계에서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지구적 공간 규모와 세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그 관계들이 설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지역'에 대한 관심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세계화과정과 관련하여 '지방화'(localization) 과정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으며, 또한 이 양 과정이 동일한 메카니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세계-지방화(glocaliz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계화과정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및 공간적 보편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지역이나 국지적 장소들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적 차원에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방법론이나 분석틀에 따라 고찰하지는 않는다. 또한 방법론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은 더 이상 분석단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의 종말'(the end of geography)이 닦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세계화과정 속에서 추론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 개념의 무의미화는 이른바 정보화과정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세계화과정에 관한 많은 논평가들은 이 과정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병행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화과정에 내포된 기술적 및 경제적 변화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선성, 즉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에 바탕을 두고 있다(Harvey, 1989). 새로운 교통기술과 원격통신의 발달로, 공간은 그 제약적 효과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자본의 회전기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 가장 유리한 투자조건을 찾아서 자본이 초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이 영토 또는 지역의 공간을 대체하게 되었고(Castells, 1989; 1996), '세계적 문화'의 등장 또는 '탈영토화된' 세계의 형성이 주목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화·정보화 과정을 추동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지역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장메카니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경제적 활동이나 그 효과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는 일시적인 불균형 또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국가의 부당한 개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지역발전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철회하고 시장메카니즘으로의 복귀를 통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언젠가는 균형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부 정책과 수사학에 따라, 실제 신고전적 성장모형이 부활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형의 논리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이 개인당 소득의 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지역이 기술에 대한 접근이 유사하다면, 빈곤한 지역은 부유한 지역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게 되어, 결국 세계적으로 공간적 균형상태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지만(예로, Dunford, 1998), 신자유주의

적 정부관료들과 정치가들은 시장메카니즘이 이러한 균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아가서, 세계화를 강조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치가들이나 이론가들은 지역이나 지방의 특이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를 초월하기 위하여 이른바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s)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세계적 표준이 적용되는 않는 지역(또는 국가)은 경제적 활동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후진국으로 간주되고,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세계적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가정들과는 달리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실제적 단위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과정 속에서도, 예로, 서유럽의 개별 지역이나 지방들은 국가(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관계 속에서 행위주체가 되고 있다. 우선 간단하게 추론해 보더라도,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경제활동에서 지역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연구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이희연·최재현, 1998, 571). 특히 현대 자본주의를 특징지우는 지식집약적 산업은 지역적 수준에서 보다 새로운 정보의 투입과 광범위한 하부구조의 개발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제적 전환의 속성은 세계경제에서 '지역'을 기본적인 경제단위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경제적 전환의 동일한 과정의 양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Florida, 1996). 즉, 지역적 차이는 역사적 관성 또는 인구적 특성이나 여타 비지리학적 변수들에서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 과정의 결과물 또는 이의 구성적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그것이 가지는 어떤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의 잔차적 범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세계화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세계화의 영토성은 '지리학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본, 사람, 제도, 기술을 국지화된 지리적 집괴화와 공간적 집단체화를 촉진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도시-지역 르네상스'(urban-regional renaissance)라고 지칭될 정도로 재활성화되고 있다(Jones and

MacLeod, 1999). 특히 세계화과정을 추동하는 '포드주의 이후' 체제(after-Fordist regime) 속에서, 선진 산업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지역 르네상스'는 고(高)수익 지역경제와 도시권들이 부의 창출을 위한 경주에서 선두에 등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cott, 1996). 물론 '도시-지역 르네상스'는 단순히 지역이 지식(학습) 기반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적 자산의 보고라는 점뿐만 아니라 지역은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의 근본적 토대이며, 또한 '성찰적 자본주의'(reflexive capitalism)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범위 분석을 실제적 단위로서 유의성을 가진다(Stoper, 1997).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과정에서 있어서도, 개별 지역의 특이성 또는 지역적 차이는 여전히 잔존하거나 오히려 새롭게 증폭하고 있다. 예로, 새로운 기술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괴리로 인해, 지리적 차이는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Castells, 1996). 시간이 풍요로운 세계를 위하여 공간을 정복하게 됨에 따라, 한 사회의 공간성은 개인적, 국지적, 지역적인 장소에 한정된 사람과 세계적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간을 구분지우고 있다(Bauman, 1998). 이에 따라, 지역적 차이의 지속 및 새로운 지역적 차이의 등장을 지도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보다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Thrift, 1998). 현재적 상황에서 지역적 경제 및 정치의 차이가 사라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에 일반화된 정치경제학을 단순히 지역에 원용하는 접근법(즉 political economy of region)에서 나아가 지역의 특성 또는 지역적 차이가 단순히 비공간적 과정의 파생물이 아니라 그 핵심이 되는 '지역적 정치경제학'(regional political geography)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Agnew, 2000).

이와 같이 세계화 및 정보화 과정에서 지역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역불균등발전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의 강도는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항상 자유무역을 통해 부와 권력의 엄청난 혜택과 확대를 찾고 획득하려는 특정 장소의 특정 세력들에 의해 추구되

고 추인된 특정한 프로젝트임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Harvey, 2000, 최병두 외 역, 2001, 122). 이러한 점에서, ‘지역적 정치경제학’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치밀하게 재조직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가시적 형태와 그에 내재된 정치경제적 및 지리적 메커니즘이며 또한 프로젝트로서 불균등발전 간의 상호작용을 기본적 전제로 설정하고, 세계화과정 속에서 지역이 어떻게 재형성되고 있으며, 지역적 차이가 어떻게 새롭게 증폭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서 알렌 등(Allen, Massey and Cochrane, 1998)은 1980년대 영국 동남부지역을 연구하면서 이 지역을 영국의 ‘신자유주의의 심장’(heartland of neo-liberalism)이라고 지칭하고,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이 지방·지역경제를 어떻게 ‘자유무역’에 관한 담론과 실행의 세계적 헤게모니와 결합시키면서, 이 지역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형성하고 재형성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물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세계화과정과 지역불균등발전 간의 관계로서 설정된 지역의 특성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지역적 정치경제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새로운 지역적 변화가 신고전적 지역(발전)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리카르도적 사고나 전후 복지국가에서의 지역발전에 관한 공간적 케인즈주의와 같은 고전적 틀로서도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안적 틀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이론의 사례로서, 조절이론을 들 수 있다(Kratke, 1999; 김세연, 1997). 이 이론은 지역을 포스트포드주의적 경제체제의 제도가 구축될 수 있는 유효한 장으로서 이해하거나(Scott, 1996, 1998), 지역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경제 질서에서 ‘모티’로서 평가한다(Storper, 1997).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창조적 파괴’를 전제로 한 혁신과 이에 의해 매개되는 해외직접투자, 기술이전과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발달 등이 강조되기도 한다(Florida, 1996). 이러한 조절이론과 병행하여 제도화학적 접근(Amin, 1999)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를 제도화된 과정’으로 이해하는 제도학파는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고 있는 국지적 시민사회의 작

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의 경쟁적 이익이나 역사적으로 함양된 사회제도적 인프라(예로, 네트워크, 규범, 관례, 신뢰기반으로서 대면적 상호행위, 호혜성의 수평적 관계) 등을 강조한다.

조절이론이나 제도학과와 지역적 정치경제학간에는 일정한 관점과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자는 대체로 후자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불균등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후자의 관점과는 달리, 전자의 입장은 지역을 분석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전략의 거점으로서도 강조한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외부경제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지역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네트워크, 지역 혁신, 학습지역, 지역적 경쟁성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예로, ‘학습지역’의 개념에 의하면, 자본이 초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세계경제 속에서도 일상적인 사업환경 내에서 비공식적인 대화, 협업, 사회성 그리고 상호연대를 통한 학습이 여전히(또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학습지역은 이에 참여하는 사업들간의 공간적 상호 연계를 통해 창출되며, 이를 통해 노동 및 여타 자원의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의 이점 또는 생산과 분배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효한 재구조화의 이점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자본보다는 지식, 통제보다는 학습, 지시보다는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적 관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국지적 축적 및 협력의 지역적 문화 또는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는 지역통치 구조에서 지역주의의 중요성을 새롭게 하고 있다(Storper, 1997; Keating, 1997). 즉, 이러한 지역주의는 지역적 경쟁에 있어 세계경제에서 영토적 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내 행위들의 조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주의 또는 지역적 경쟁력에 관한 강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세계적 ‘도시-지역들’(city-regions)에 관한 연구나 관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거대도시들(흔히 세계도시라고 불리는 대도시들)과 연관된 지역들은 세계

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주요한 결절로서 등장하고 있다. 세계도시-지역들은 서비스산업과 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부 지역들을 조직하고 세계경제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지역들을 통해 세계경제는 점차 조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도시들은 산업지역들을 세계경제에 연결시켜 준다(Scott, 1998).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대도시-지역은 새로운 성장거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성장거점이 배후지역의 자본과 노동을 역류시키면서 집중과 집적을 통해 발달하는 것과는 달리, 특화와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기업 네트워크들 간 협력과 혁신을 통한 '지역적 특화'는 해당 지역에 대해 특정 산업부문에 있어 외부경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가져다주며, 대도시의 서비스산업들은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들의 제조업 성장과 긴밀한 '지리적 연계'를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도시-지역들의 발전은 과거의 성장거점들과는 달리 특화와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대도시로 고용이나 소득이 일방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도심과 배후지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발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현상을 스코트(Scott, 1998, 70-71)는 '지역경제의 세계적 모자이크'라고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도시-지역은 세계적, 다국가적,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의 등장과 재접합에서 세계적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는 각 지역경제의 발전에 있어 그 역동성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과거의 국가-지역간 분석틀을 세계-지역간 분석틀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의 지역적 정치경제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세계적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이라는 사고와 관련된 경제발전의 핵심지역은 정치제도적 의미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Brenner, 1998). 세계화 과정 속에서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 경제는 점차 도시-지역들을 둘러싸고 구조화되고 있지만, 정치와 정책결정은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영토적 규모로 이루어진다. 즉, 오늘날 세계자본주의 경제에서 세계도시지역들의 역할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정치와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영토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비록 이러한 '세계적 도시-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지역발전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세계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즉, 서구 선진국들,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도시-지역의 발전 전략이 증대하고 있으며, 세계화 과정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지역적 경쟁의 목적은 다른 지역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간적 형평성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점이다(Cheshire and Gordon, 1996; 1998).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첫째 그 지역 내 분명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 국지적 자산(예로, 경제지대를 얻음으로써)을 가진 집단이 가장 큰 수혜자들이며,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희소한 또는 고차의 기능을 보유한 노동자들이나 자산소유자들, 그리고 이러한 기능에 일정하게 서비스하는 집단들은 수혜자가 되지만, 탈속련화된 노동자들이나 무자산가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배제되어 있는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있다. 둘째, 단지 특정한 정책만이 성공할 수 있다. 특혜를 통한 역외자본의 유치는 지역적 관점이나 세계적 관점에서 낭비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기존 역내 기업들에 대한 보조 지원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습과 훈련, 기업가정신의 함양, 서비스 개선, 인프라 투자, 불확실성의 감소와 조정 등이 강조될 수 있다(Cheshire and Gordon, 1998).

그러나 이러한 성찰적 지역발전이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즉 '지역'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받게되었다. 예로, 러브링(Lovering)에 의하면,

"정보경제의 성장에 함의된 세계적 전환의 결과로 '지역이 되살아나고 있다'(regions are resu-

rgent)는 주장은 정설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러나 이에 앞섰던 포스트포디즘이라는 유행처럼, 이는 유행의 승리를 나타낸 것으로, 학문적 권위의 영향이 사회과학을 덮고 있다. 실제 지역발전에 대한 인과적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다루는 것은 실제 세계 지역들 대부분의 경제적 역동성에 미치는 보다 중요한 영향들을 간과하는 '새로운 지역주의자들'(New Regionalists)을 유도하는 것이다"(Lovering, 1999, 386).

이러한 관점에서 Lovering(1999, 385)은 최근 부활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주의 또는 새로운 지역지리학에 대한 강조는 여러 가지 실제적 및 이론적 부적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으로, 새로운 지역주의는 ① '지역'의 개념적 딜레마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② 이념형적인 이론적 범주를 실제 세계의 경험적 범주로 막바로 끼어 맞추기식으로 원용하고 있으며, ③ 지역적 변화를 보다 폭넓은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 위치지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발전 방향

학문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의 개념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개념은 단순히 주어진(예로 행정적)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당연적으로 주어진 영구적인 지역의 고정 단위에서 지리적 경계와 정치경제적 유의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단위로서의 지역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역할당적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개념의 변화 그리고 지역지리학의 발달은 현실 세계에서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이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망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지역적 차이를 보편적인 공간적 균형상태로 나아가는 경로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비지리적 독립변수들이 특정지위질 경우 한계적 유의성만을 가지는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지역 개념화를 전제로 한 기존 연구방법론의 지적 해체모니에 도전하고 있다. 달리 말해,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고전 및 근대적 의

미의 지역지리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닐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후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실증주의적 지역과학(regional scienc)이 1990년대 초 처하게 되었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기회의 제공도 아니다(Bailly and Coffey, 1994; Rees, 1999). 또한 이러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은 우리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성행하고 있는 비지리적 관점에서의 지역연구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배경(즉 세계화과정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다른 방법론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초의수, 1993 참조).

이러한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분석단위로서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의 정치경제학'에서 지역을 전제로 이론화된 '지역적 정치경제학'(즉 지역불균등발전의 정치경제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정치경제학으로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과거 지역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화를 특징지었던 것 보다도 더 다양한 이론적 경향들을 포괄하고 있다. 조절이론자나 제도주의자, 문화경제론자들은 보다 관계적인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법들과 경쟁하면서, 지역(발전)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역주의적 담론이 지역발전 연구의 영역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주의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지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을 결하고 있으며, 또한 그 관점에 있어서(노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효율성의 강화 또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발달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지역의 개념 및 지역 변화의 역동성에 관해 보다 철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근대적(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을 소급해 보면, 19세기 발달한 근대 지리학의 성립기에, 지역은 유기체로서 인식되었다(권정화, 2001). 유기체로서의 지역은 주민과 자연환경 간의 조화를 통해 그 속성이 드러나며, 따라서, 지역은 특정 시점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의 균형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지역인식은 현대 지역지리학의 재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허드슨(Hudson, 1990, 67)은 “지역의 고유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변화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지역인식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복합체(complex)로서의 지역 인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역을 복합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지리학자인 핫슨(Hartshorne, 1939, 259-260)은 지역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 즉 요소-복합(element-complex)들의 중첩이 지역적 차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지역 인식에서, 지역의 변화란 “전체로서의 지역이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라, 상이한 지역적 구성요소들이 변화하면서 이들 구성요소들의 복합이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은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가? 유기체 또는 복합체로서 지역의 개념을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발전은 전체 속에서 부분의 역할과 그 변화과정에서 유추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지리학이 지역을 주어진 실체로 본 반면,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지역의 개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하나의 단초는 ‘재구성된(reconstructed) 지역지리학’에 대한 강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파시(Paasi, 1986; MacLeod, 1998에서 재인용)는 국지적인 차원과 세계적인 차원을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을 단순히 주어진 존재(being)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성(becoming)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형성과 전환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즉 지역은 일단 형성된 이후 개인과 제도의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고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는 ‘역사적으로 개연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공간적 구조와 집단적 사회의식의 일부로서 지역의 등장과 전환을 이해함에 따라, 공간적 규모와 경제, 경제·정치적 제도 형성 및 문화적 정체성 등에 관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유추한 구체적인 지역연구는 알렌 등(Allen et al, 199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지역연구는 항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

된다. 이론적, 정치적, 문화적, 또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항상 특정한 초점이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할 수 없으며, 장소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완전한 ‘지역의 초상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은 단지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지역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그리고 타자들)의 구성물이다”(Allen et al., 1998, 2)

이와 같이,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가변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을 연구하며, 따라서 지역은 어떤 주어진 기준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도 일정하게 규정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과거의 전통적 지역지리학이 함의하고 있었던 지역의 정체성(또는 균형과 조화)을 극복하여, 지역적 구성과 전환(regional formation and transformation)에 관한 연구를 추구한다.

둘째, 새로운 지역지리학에 기초한 지역연구는 기존의 신고전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입장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연구는 결과적으로 세계화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과 실제 동일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현실 세계에서 세계화 과정은 초국가적 시장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켰으며, 기업들은 신규 또는 확충된 시장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거나 또는 사업 수행 및 이윤가능성이 높은 사회정치적 조건을 갖춘 지역예의 입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에 따른 지역적 차이는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연구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에 기초한 혁신과 경쟁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새로운 지역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주의의 영향력 증대는 그 자체의 진정한 설명적 및 규범적 장점에 기인하기 보다는 힘 있는 기업, 국가, 사회기관들에 대한 도구적 유용성에 더 많이 기인한다”(Lovering, 1999, 389).

새로운 지역지리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문제는 '어떠한 지역발전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새로운 지역연구인가'라는 점이 의문 시되어야 한다. 사실 새로운 지역연구 동향을 보면, 어떤 '비판적' 및/또는 '대안적' 지역지리학을 위하여 다양한 이론이나 이념들이 원용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스토퍼(Stoper, 1997)는 지역이 '성찰적 자본주의'(reflexive capitalism)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범위 분석을 위한 실체적 단위로서 유의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코트(Scott, 1998, 11)에 의하면, 지역은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공동체, 그리고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적 이슈에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기본틀"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시민적 전통에 기초하여 이탈리아의 발전모형을 설명하고자 했던 푸트남(Putnam, 1993)의 연구, 그리고 '결사체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허스트(Hirst, 1997)의 제안, 정치적 동원과 '영역적 정부'에 관한 키팅(Keating, 1997)의 견해들과 조응한다. 이러한 개념들에 함의된 공통점은 세계화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화 또는 지역화 과정에 관한 지역지리학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주체성과 대안적 자생력을 갖춘 지역지리학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연구는 폭넓은 세계-지역적 배경에 관한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획득된 통찰력에 기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과정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지역지리학 및 지역(발전)연구와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존의 지역지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의 개념과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역지리교육이다. 최근 세계화 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지리학의 중요성이 지리교육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세계화 과정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이 세계적 위상에 반대하여 순수하게 국지적 자생력의 기능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독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그 자체로서 어떤 공간적 규모를 가지는 실체라기 보다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보다 개방된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지역(발전)은 단지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 특성과 변화 과정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국가적 맥락, 나아가 대륙적, 지구적 맥락에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전제로 한 지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로,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교육과정을 통합함으로써, 지역 속의 지리적 현상을 주제로 간학문적, 초학문적 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 속에 내재된 지리적 의미를 찾아 해석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이 과정에서 관련된 지리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송언근, 2001). 이와 같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학습은 특히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역적 담론 속에 표현되는 '경관'과 '기호' 표상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경관과 기호 표상을 활용한 "지역 담론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학습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경관과 기호 표상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습자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지역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박승규·심광택, 1999, 85).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터전 및 생활세계의 당연적 지식의 바탕으로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요컨대, 새로운 지역지리학에서 제시된 지역의 개념과 그 내용에 관한 지리교육을 통해, 지역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국가적 및 세계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형성되어 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한편, 지역은 인간 삶의 참된 터전으로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규범적 성격, 즉 하비(Harvey)가 주장한 '희망의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지리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지역지리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지리학은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최근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변화에 따라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사회이론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지역지리학은 일련의 논쟁들, 예로, 공간성, 국지성, 재구조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 속에서 지역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들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적 현상과 사회적 과정, 행위와 구조, 물질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 등이 지역지리학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발달은 현실세계에서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지역의 체계적 개념화 및 지역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과거와는 달리 지역의 정체성(또는 균형과 조화)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지역적 재구성과 전환에 관한 연구를 핵심으로 한다. 나아가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전환된 지역의 규범적 특성, 즉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구성, 또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리학에 관한 지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에서는 아직 부분적으로 근대적 지역지리학의 지역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의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화의 개방체계 속에서 지역은 이제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양한 정치경제적 힘의 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그 경계와 내용이 형성되고 재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지역은 인간 삶의 터전으로 이러한 억압적 힘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롭게 전환해 나가야 할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文獻

-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 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 김세연, 1997, 지역연구의 새로운 접근법 ; 조절이론적 시도, 유럽연구, 6(1), 213-36.
- 류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6(4), 246-263.
- 류재현, 1987, 미국지리학에 있어서 지역 개념의 발달, 지리학논총, 14, 345-358.
- 박승규·심광택, 1999, '경관'과 '기호' 표상을 활용한 지역 학습, 대한지리학회지, 34(1), 85-98.
-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지리교육논집, 22, 80-91.
- 손명철,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명보문화사.
- 손명철, 1995, 프랑스 지역지리연구의 전개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 81-91.
- 송언근, 1996, 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신지역지리학의 방향 모색,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31, 49-75.
- 송언근, 2001, 지역중심의 주제를 통한 통합 지리교육의 구성 원리, 대한지리학회지, 36(2), 141-160.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 세계체계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5-134.
-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초의수, 1993, 공간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과 한국 지역연구의 동향, 지역사회연구, 1, 103-139.
- 최병두, 1988,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지리학, 38, 15-36.
- 최재우, 1997, 한국 지역지리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지리학논구, 17, 158-171.
- 한국공간환경학회, 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아카넷.
- Agnew, J. and Duncan, J. (eds), 1989, *The Power of Place: Bringing together the Geographical and Sociological Imagination*, Unwin Hyman, Boston.
- Agnew, J., 2000, From the political economy of

- regions to regional political econom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1), 101-110.
- Allen, J., Massey, D., and Cochrane, A., 1998, *Rethinking the Region*, Routledge, London.
- Amin, A., 1999,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 365-78.
- Baily A.S., 1994, Regional science in crisis: a plea for a more open and relevant approach, *Papers in Regional Science*, 73, 3-14.
- Bauman, Z., 1998, On globalization: or globalization for some, localization for others, *Thesis Eleven*, 54, 37-49
- Bunge, W., 1966, Locations are not unique, *Annals,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56.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Blackwell, London;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한울.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Network Society*, Blackwell, London.
- Cheshire P.C. and Gordon, I.R., 1996, Territorial competition and the predictability of collective (in)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0, 383-99.
- Cheshire P.C. and Gordon, I.R., 1998, Territorial competition: some lessons for policy, *Annals of Regional Science*, 32, 321-46.
- Cochrane, A., 1987, What a difference the place makes: the new structuralism of locality, *Antipode*, 19(3), 354-363.
- Cooke, 1987, Individuals, localities and postmodernism, *E&P D: Society and Space*, 5, 408-412.
- Cooke, P., 1989, *Localities: The Changing Face of Urban Britain*, Unwin Hyman, London.
- Dear, M., 1988, The postmodern challenge: restructuring human geography, *Transaction,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3(3).
- Duncan, S. and Savage, M., 1991, New perspectives on the locality debat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155-164.
- Duncan, S., 1989, what is locality,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Unwin Hyman, 221-252.
- Dunford, M., 1998, Reg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e Gales, P., and Lequesne, C. (eds), *Regions in Europe*, Routledge, London, 89-107.
- Entrikin, N., 1994, Place and reg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 227-233.
- Florida, R., 1996, Regional creative destruction: production organ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Midwest, *Economic Geography*, 72, 314-340.
- Gerald Wood, D., 2001, Regional geography, in N.J. smelser, P.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Oxford.
- Giddens, A., 1981,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lan, London; 최병두 역, 1991,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
- Gregory, D.,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Hutchinson, London.
- Gregory, D., 1981, Regional geography, in R.J. Johnston et al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London; 한국지리연구회 역, 1992, 현대인문지리학사전, 한울.
- Guelke, L., 1977, Regional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29(1), 1-7.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AG, Lancaster, Pa.; 한국지리연구회 역, 지리학의 본질, 민음사.
- Harvey, D., 1987, Three myths in search of a reality in urban studies, *E&P D: Society and Space*, 5, 367-376.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London; 구동희·박영민 역, 1995,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Harvey, D.,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J.Bird et al (eds), *Mapping the Future: Local Culture,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박영민 역, 1995, 공간에서

- 장소로 다시 반대로, 공간과 사회, 5, 32-71.
-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Edinburgh Univ.; 최병두·이상울·박규택·이보영 역, 2001, 희망의 공간, 한울.
- Holmen, H., 1995, What's new and what's regional in the new regional geography? *Geografiska Annaler*, 77B, 47-63.
- Hudson, R., 1990, Re-thinking region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on regions and social change, in Johnston, R.J., Hauer, J. and Hoekveld, G.A.,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67-84.
- Jonas, A., 1988, A new regional geography of localities? *Area*, 20(2).
- Jones, M. and G. MacLeod, 1999, Towards a regional renaissance? Reconfiguring and rescaling England's economic governance, *TIBG*, 24, 295-313.
- Keating, M., 1997, The invention of regions: political restructuring and territorial government in Western Europe, *E&P C: Government and Policy*, 15, 383-98.
- Kratke, S., 1999, A regulationist approach to regional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1, 683-704.
- Lee, R., 1985, The future of the region: regional geography as education for transformation, in R.King (ed), *Geographic Futures*, Geographical Association of Sheffield.
- Lovering, J., 1989a, The restructuring debate,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Unwin Hyman, 198-223.
- Lovering, J., 1989b, Postmodernism, Marxism and locality research: the contribution of critical realism to the debate, *Antipode*, 21(1), 1-12.
- Lovering, J., 1999, Theory led by policy: the inadequacies of the 'new regio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 379-95.
- MacLeod, G., 1998, In what sense a region? Place hybridity, symbolic shape, and institutional formation in (post-)modern Scotland, *Political Geography*, 17(7), 833-863.
- MacLeod, G., 2001, New regionalism reconsidered: globalization and the remaking of political economic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4), 804-829.
- Massey, D., 1979,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Regional Studies*, 13, 233-243.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r*, Macmillan, London.
- McTaggart, W.D., 1993, Bioregionalism and regional geography: Place, people, and networks, *Canadian Geographer*, 37(4), 307-319.
- Mead, W.R., 1980, Regional geography, in E.H. Brown (ed), *Geography: Yesterday and Tomorrow*, Oxford Univ.
- Paasi, A., 1986,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regions and the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Fennia*, 164, 105-146. (MacLeod, 1998에서 인용).
- Peet, R., 1978, Materialism, social formation and socio-spatial relation, *Cahiers de Geographie du Quebec*, 22, 147-57.
- Pratt, A.C., 1991, Discourse of loc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2), 257-266.
- Pudup, M.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3).
- Putnam, R.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NJ (Agnew, 2000에서 인용).
- Rees, J., 1999, Regional science: from crisis to opportunity, *Paper in Regional Science*, 78, 101-110.
- Relf,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Sayer, A., 1989, The new regional geography and the problem of narrative, *E&P D: Society*

- and Space*, 7, 253-276.
- Sayer, A., 1991, Behind the locality debate: deconstructing geography's dualism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 Scargill, D.I., 1985, Space, place and region: towards a transformed regional geography, *Geography*, 70, 138-141.
- Scott, A., 1996, Regional motors of the global economy, *Futures*, 28, 391-411.
- Scott, A., 1998, *Regions and the World Economy: The Coming Shape of Global Production, Competition, and Political Order*, Oxford, U.P.
- Smith, N., 1981, Degeneracy in theory and practice: spatial interactionism and radical eclectic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5, 111-118.
- Smith, N., 1987,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19.
- Soja, E.W., 1980, The socio-spatial dialecti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 207-25.
- Soja, E.W., 1985, Regions in context: spatiality, periodicity and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regional question, *E&P D: Society and Space*, 3.
- Stoper, M., 1997, *The Regional World: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Guilford, New York..
- Thrift, N., 1990,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1.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 272-9;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 456-65.
- Thrift, N.,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P D. Society and Space*, 1(1), 23-57.
- Thrift, N., 1998, Towards a new New Regional Geography,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37-46(Gerald Wood, 2001에서 인용).
-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구동희, 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대운.
- Urry, J., 1987, Society, space and locality, *E&P D: Society and Space*, 5, 435-444.
- Warde A., 1989, Recipes for a pudding: a comment on locality. *Antipode*, 21(3), 274-81.

(2002년 3월 25일 접수)